

월간

공군



제562호

04

Content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Magazine

04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18

내 옆의 공군인

숙명여대 학군단장, 김현주 중령



12

특별기획

『공군』지(誌), 75년의 발자취

22

지도들고 떠나는 공군사

공군교육사령부의 흔적-대전광역시

16

Space Challenge 2025

Space Challenge 이모저모



26

공군 부대 탐방

제16전투비행단



표 지 (앞) Space Challenge 2025 축제의 현장(일러스트레이터 반)
표 지 (뒤)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고 있는 하늘이프렌즈(최수정 작가)
발 행 일 자 2025년 4월 1일(통권 제562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실장 대령 김권희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세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서현옥, 중사 강지영
전 자 도 서 관 www.afzin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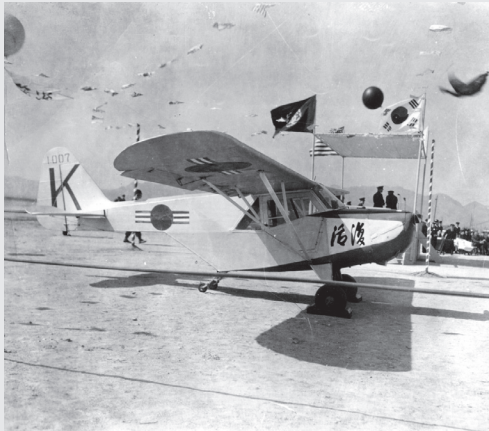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503018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30

이달의 공군史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 명명식(1954. 4. 3.)



42

세계 식문화 기행

이탈리아 음식 이야기

44

소리로 보는 세상당신은 나를 어린아이처럼 꿈꾸게 해요.
슈만 『트로이메라이』

46

서양 문화 비행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I -
미술기법의 혁신이 된 원근법

32

Aero Detail

무인 전투기의 역사 I

48

생각하는 그림

진정한 승자

36

전적지에서 바라본 전쟁 이야기

영국 런던·도버해협

50

특별기고공군사관학교 77기 생도들의 시작에 부쳐
(최한영 국방일보 기자)

40

한 달, 한 권군대에서 만난 평생의 연인,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51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월간

공군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

공군사관학교는 3월 12일(수), 교내 성무연병장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으로 제73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지난 2021년 입학한 제73기 사관생도들은 4년 동안 학위교육과 강도 높은 군사훈련, 생활교육을 이수하며 정예 공군 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한 185명의 신임 장교들은 공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주역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임관 선서를 하고 있는 제73기 신입 소위들



공군사관학교장에게 졸업증서를 받고 있는 안주선 소위



20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습

대한민국 공군은 3월 10일(월) ~ 20일(목), 韓·美 연합공군의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고 이와 연계된 실전적 훈련을 통한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자유의 방패 연습(이하 FS 연습)에 참여했다. 이번 연습에는 韓 공군의 F-35A, F-15K, (K)F-16, FA-50, KC-330 등 전력과 美 공군의 F-35A, F-16, A-10, MQ-9, MC-130 등 전력이 참여했으며 韓·美 연합공군은 4·5세대 전투기 통합 연합 항공차단(Air Interdiction·AI) 훈련 등 다양한 공중기동 훈련을 통해 양국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했다. 더불어, 韓·美 연합공군은 지속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야외기동훈련(Field Training eXercise·FTX)을 실시하며 전 영역에 대한 실전 능력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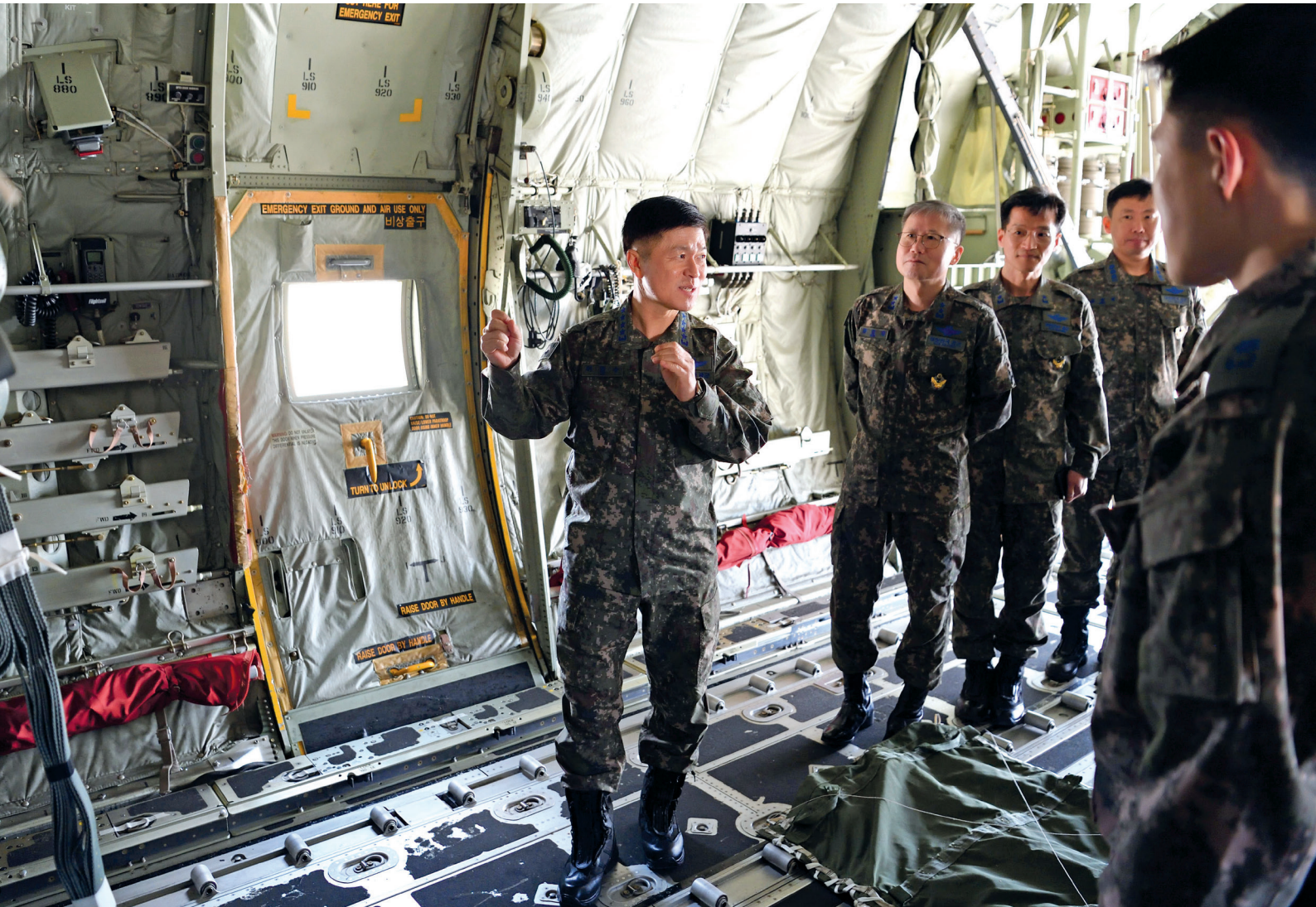
기지경계를 수행 중인 제2미사일방어여단 임무 요원



국군화생방사령부와 합동 화생방 대응 훈련 중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훈련 요원



편대 비행 중인 韓·美 연합 F-35A 편대(상단 2기: 韓측, 하단 2기: 美측)



대량화물 투하훈련 참관

이영수 참모총장은 3월 19일(수), 당말리 공중 투하훈련장에서 시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을 참관했다. '25년 FS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전시 임무 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육군 신속대응사단에 보급물자 등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루어졌으며 C-130, CN-235 등 수송 전력이 참가했다. 참모총장은 임무 요원들의 전시 공중투하 능력과 절차 숙달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훈련에 참가한 인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항공무기정비 감독자 간담회



이영수 참모총장은 3월 5일(수) 계룡대 공군 본부에서 항공무기정비 감독자 간담회를 주관했다. 항공무기정비 감독자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각급 부대에서 정비요원들을 관리하는 등 일선 부대에서 중간 관리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군 정비업무의 중추이다. 정비감독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축적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비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모총장은 “정비는 보이지 않는 전투이자 공군 전투력을 지탱하는 힘이다.”며 “내가 공군을 날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한 공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학군장교(ROTC) 임관식



이영수 참모총장은 2월 28일(금)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거행된 2025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 참석했다. 참모총장은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영예롭게 임관하여 장교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신임 장교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한편, 이번 임관식에서는 공군 학군사관 52기 146명을 포함하여 총 2,758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소위로 임관했다.



공군사관학교

공사 비전 2050 선포식

공군사관학교는 3월 5일(수), 전 사관생도, 지휘관·참모, 교수·훈육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비전 2050 선포식을 거행했다. 공사 비전 2050은 공사가 개교한 지 100년이 넘게 되는 2050년을 준비하며 공군 비전에 맞는 미래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관학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다. 공사는 이날 선포된 공사 비전 2050을 바탕으로 학위교육, 리더십, 우주교육, 항공적성, 교육환경 5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정예장교 양성'과 '군·국가·사회의 리더 육성'이라는 공사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공군교육사령부

제54기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

교육사령부는 2월 26일(수), 교육사 대연병장에서 제54기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실시했다. 신임 부사관들은 지난 2022년 항공고에 입학해 항공통제·항공전자·정보통신·항공기계 4개 전공 중 1개 전공을 선택해 3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6주 동안의 기본군사훈련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정예 공군 부사관의 자격을 갖추었다. 이번 졸업 및 임관식을 통해 군인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신임 하사들은 각자 배속된 자대에서 최신 무기체계를 운용하며 조국 영광 수호를 위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합동 대량전상자 의무지원 훈련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3월 12일(수), 해군 해양의료원과 함께 합동 대량전상자 의무지원 훈련을 시행했다. 대량전상자 의무지원 훈련은 전시 동시 다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은 적의 탄도탄 공격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실전과 같은 훈련에 임하며 5비 임무요원들은 합동 의무지원 절차를 정립함은 물론 대규모 환자 후송능력을 입증했다.



제10전투비행단

'25-1차 전투태세훈련

제10전투비행단은 3월 10일(월) ~ 13일(목), 전시 임무수행 절차 숙달 및 실전 대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25-1차 전투태세훈련 (Operation Readiness Exercise·ORE)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10전비 장병들은 전시 출격 훈련, 대테러 훈련, 항공기 제독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시행하며 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능력을 확인했다. 또한, 10전비는 훈련을 통해 임무수행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보완하고 발견된 미흡사항의 개선점을 도출하며 장병들의 전투능력을 날카롭게 가다듬었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교육 봉사 동아리 재능 기부 활동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장병으로 구성된 교육 봉사 동아리가 재능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 봉사 동아리 인원들은 군대 이전 경험을 살려 뛰어난 교과 지식과 교수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동아리 인원들은 매주 화요일 세곡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등 과목에 대한 교육 지원을 실시함은 물론 진로·교우 관계 등 학생들의 고민거리도 상담해주는 등 학업 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고 있다.



제1미사일방어여단

시뮬레이터 활용 차량 돌발상황 체험교육

제1미사일방어여단은 2월 25일(화) ~ 3월 4일(화), 차량용 가상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돌발상황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여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1여단 장병들은 실제 차량 운전석을 재현한 시뮬레이터에 탑승하여 보행자 무단 횡단, 우회전 차량 끼어들기, 자전거 횡단 등 실제 도로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공군』지(誌), 75년의 발자취



대한민국 공군의 공식 간행물인 『공군』은 1950년 창간 이후 75년에 걸쳐 공군의 주요 활동과 비전을 기록해온 잡지로 그 자체로 공군의 역사이며 정신이다. 1950년 4월 첫 호를 펴낸 이래 75번째 생일을 맞이한 『공군』은 시대에 따라 이름과 형식을 바꾸며 발전했고 현재는 공군인들뿐 아니라 공군과 국민이 소통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공군』이 걸어온 75년의 길과 『공군』이 그릴 미래를 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공군』 창간호와 『공군 순보』

『공군』의 시작은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된 후 6개월 남짓 흐른 195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군이 하나의 독립된 군종으로서 첫걸음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군 본부는 공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한 기관지 발행을 결정했다. 이렇게 6·25 전쟁 발발 직전 『空軍』(공군)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당시는 공보활동과 장병 정신전력교육을 수행할 정훈실이 갖춰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창간호는 공군 본부 작전국에서 발간했다. 『공군』 창간호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 과정, 대한민국 항공사 등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창간 직후 6·25전쟁이라는 참화 속에서 잡지의 발행은 중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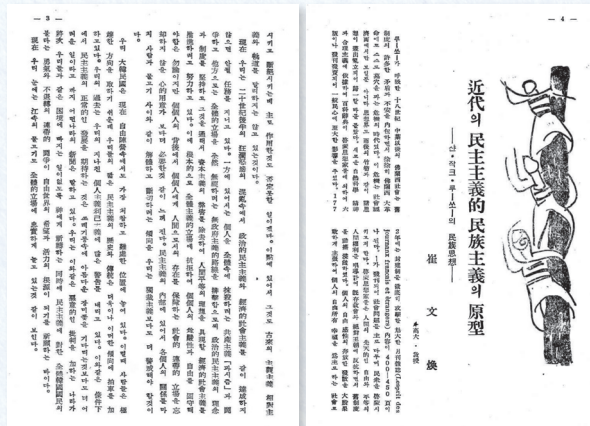


『공군』 창간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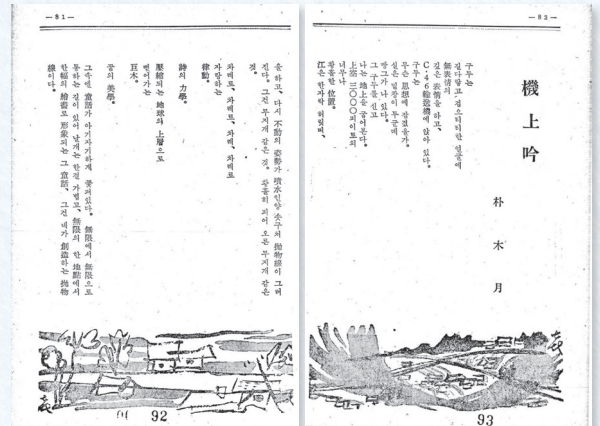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간행물 발간 활동은 1951년 5월, 『공군 순보』라는 이름의 잡지로 재개된다. 이때부터 현재의 발행 주체인 정훈실(당시 정훈감실)에서 발간 활동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전쟁 상황 속에서도 『공군 순보』라는 잡지를 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화예술계와 본격적으로 협업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문인들이 군대의 울타리 안에서 ‘창공구락부’라는 중군문인단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발행 업무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10일을 주기로 발행된다는 ‘순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으나 급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주기는 지켜지지 못했다. 하지만 『공군 순보』는 출격 조종사 좌담회 등을 통해 항공사상을 보급하는 한편 당시 심각한 문제였던 이념 대립에 대하여 교양적 차원에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정신적 위안을 주는 다양한 문예 활동들을 담은 등 ‘종합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19호까지 발행된 『공군 순보』는 이후 발행될 잡지들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현재 『공군』의 지령(誌齡) 역시 이 『공군 순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코메트』

6·25전쟁이 한창인 1952년, 공군은 기관지 이름을 『코메트』(The Comet)로 바꾸어 발행하기 시작한다. 『코메트』는 ‘교양의 보급’이라는 공군 정훈실이 그리던 지향점을 담아 ‘종합 교양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장교들을 주 독자층으로 고려한 『코메트』는 자유 진영의 일원이라는 국제정세를 다루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세계정세 인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또한, 『코메트』 발행에는 앞서 언급한 창공구락부가 다시 한 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참여한 창공구락부의 필진들은 시, 소설, 수필 등 문학 작품을 기고하며 지면을 풍성하게 채웠다. 이러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은 장병들에게 ‘문학 읽기’라는 공동의 경험을 부여함으로써 공감대를 만들고 나아가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켰다. 더불어, 초창기 공군인들의 사생관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담아냈기에 『코메트』는 문학과 역사가 어우러진 귀중한 기록물이 될 수 있었다. 이렇듯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 『코메트』는 교양의 보급을 통해 ‘문무를 겸비한 지성인으로서의 군인’을 만들고자 했던 종합 교양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교양주의적 기획은 이후 계간 『공군』으로 계승된다.



1954년 『코메트』 제27호에 실린 서울대학교 최문환 교수의
‘근대의 민족주의적 민족주의의 원형’ 기사



1958년 『코메트』 제35호에 실린 박목월 시인의 시 '기상음(機上吟)'

『미사일』

1950년 후반과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며 『코메트』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자 이러한 사회적 혼란에 편승하지 않도록 장병들에게는 규칙을 내면화하며 지켜 내는 ‘수양’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공군도 일상에서의 수양과 극기를 강조한 생활실천지적 성격의 잡지인 『미사일』을 발행하기 시작한다. 월간지 『미사일』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활실천지적 성격은 물론 당시의 최신 항공무기 중 하나인 ‘미사일’을 제호로 내세움으로써 항공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 간행물이었다. 1961년, 『코메트』와 『미사일』은 함께 공존했지만 1962년 ~ 1963년 시기 동안 『코메트』는 발행이 중단되고 『미사일』만 발행된다.

계간 『공군』

생활실천지적인 성격이 강한 『미사일』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1961년 4월 ~ 1963년 3월) 동서 경쟁이 격화되던 국제적 상황 속에서 공군은 ‘사상심리전을 통한 정신무장’을 목표로 휴간되었던 『코메트』와 발행 중이던 『미사일』을 통합하여 계간지인 『공군』을 창간한다.

“... 군 정훈 교육의 교재적 소임과 군의 교양 향상을 위한 교양지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는 것이다. ... 지난날 코메트가 쌓아 올린 빛나는 전통과 미사일이 개척해놓은 새로운 경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위에 제시된 김영호 당시 정훈감의 권두언 속에는 『코메트』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사일』의 장점을 더해 『공군』이라는 계간지로 발전시키고자 한 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계간 『공군』에는 자유 주제의 시, 수필, 소설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이 다시 연재되기 시작했고 공군 무기체계 해설, 공군 전술 발전사, 공군 인물 인터뷰, 군사 전략 분석, 공군 역사 재조명 등 심도 있는 콘텐츠와 함께 공군의 주요 정책, 경제발전과 공군의 현대화 등 시대에 따라 공군이 성장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이때의 『공군』은 계간지라는 특성을 통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기사들을 실으며 1990년대 후반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다.

월간 『공군』

계간 『공군』은 계간지라는 장점을 통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의 기사를 다루는데 용이했다. 하지만 계간지라는 한계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이나 신속한 소식 전달의 측면에는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군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1998년 9월, 당시 발행 중이었던 주간지 주간 『공군』과 계간 『공군』을 통합해 월간지인 월간 『공군』을 창간했다. 하나의 월간 잡지 형태로 재탄생한 『공군』은 이전의 두 간행물이 담던 내용을 아우르며, 공군의 소식과 깊이 있는 읽을거리를 한 권에 담기 시작했다. 월간 『공군』은 이전처럼 공군인들의 삶과 활약상을 꾸준히 기록해오고 있으며 잡지의 콘텐츠 역시 더욱 다채로워졌다. 월간지로 변모한 『공군』은 매월 공군의 주요 행사와 작전 소식, 부대원들의 활약상을 전하는 것은 물론, 역사 기획 연재나 전문가 칼럼, 공군 무기와 기술 소개, 장병들의 이야기, 그리고 일반 대중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항공우주 상식과 문화 콘텐츠까지 망라하고 있다. 이처럼 『공군』은 창간호, 『공군 순보』, 『코메트』, 『미사일』, 계간 『공군』에서 현재의 월간 『공군』에 이르기까지, 제호의 변화와 함께 내용 면에서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변화하면서도 공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장병들에게 교양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초기의 기획을 이어오고 있다.

형식의 변화

초창기 잡지의 형식은 오늘날과 사뭇 달랐다. 1950년대 창간호와 『코메트』 시절의 잡지는 활자가 중심이었고, 지면 구성은 세로쓰기와 한자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용지 사정과 인쇄 기술의 한계로 사진이나 삽화는 제한적으로 실렸으며, 대부분 흑백으로 표현되었다. 1969년부터 현재처럼 가로쓰기 방식을 택하며 가독성을 늘리기 시작한 『공군』은 1970~80년대로 접어들면서, 편집 디자인과 인쇄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오프셋 인쇄의 도입과 함께 일부 지면에 컬러 사진과 컬러 그래픽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책자 형태로, 전문 잡지에 가까운 레이아웃과 제본 방식을 선보였다. 이 시기의 계간지는 표지에 공군의 상징색을 활용한 컬러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주요 기사마다 정밀한 도판과 지도를 실는 등 시각적 완성도 또한 높아졌다.



컬러로 인쇄된 1987년 『공군』 제203호 내부 기사

1998년, 월간 『공군』으로 통합되면서 잡지의 형식은 더욱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모했다. 편집기법의 다양화로 세련된 지면을 구성했고 통일성 있는 잡지 형식을 갖추었다, 전면 컬러 인쇄가 정착되어 모든 페이지에서 컬러 사진과 그래픽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잡지 표지 디자인에도 공을 들여 매월 주제를 담은 상징적 이미지를 실었으며 주요 기사에는 인포그래픽이나 도표를 곁들여 시각적 이해를 도왔다.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공군』은 인쇄 매체를 넘어서는 변화를 이루었다. 2019년 공군은 『공군』 E-Book 자료관을 개설하여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모든 공군지의 디지털 열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과거의 잡지도 언제 어디서나 PC나 모바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검색 기능을 활용해 원하는 기사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아날로그 잡지가 디지털 아카이브로 거듭난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의 국한문 혼용자료를 현대의 순한글로 번안하는 작업을 지속하며 방대한 『공군』이 과거에 머무는 자료가 아니라 현대에도 누구에게나 손쉽게 이용되는 자료로 만들었다. 더불어, 공군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해 잡지의 기사를 홍보하고 잡지의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을 youtube 채널에 게재하는 등 『공군』은 여러가지 미디어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시대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월간 『공군』 표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섬네일



‘월간 『공군』 표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QR 코드

『공군』의 미래

『공군』은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를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과 나눌 것이다. 『공군』이라는 잡지 자체가 역사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과거의 공군사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하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는 것 역시 『공군』이 해야 할 일이다. 『공군』은 공군의 역사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며 독자와 공군 장병들 모두에게 공군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알리며 기록할 것이다.

또한, 미래 공군이 가져야 할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시대를 맞아 우주력, 사이버전, 무인체계 등 미래 전장의 이슈를 다루는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이를 통해 공군 장병들이 미래를 대비한 안목을 키우고, 국민들이 우리 공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공군의 모습을 기록할 것이다. 새롭게 공군이 활용하게 된 주요 전력, 영공방위를 위해 펼친 다양한 훈련 그리고 공군을 구성하는 이들과 공군에 헌신했던 이들의 모습까지 현재의 대한민국 공군이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다.

75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이어져온 『공군』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창간 이래 변함없이 공군인의 버팀목이자 공군 역사의 살아있는 아카이브로 기능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 발자취를 이어가며 공군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를 담아낼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공군』은 공군의 정신을 기록하고 알리는 한편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 공군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SPACE CHALLENGE

이모저모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 QR 코드



‘공군 Youtube 채널’
바로가기 QR 코드

공군의 대표적인 항공우주과학 축제인 Space Challenge가 2025년에도 돌아왔다. 1979년 모형항공기 대회로 시작하여 올해로 46번째를 맞이한 Space Challenge는 지난 2024년부터 대회 중심의 운영에서 지역 에어쇼 형태의 체험·축제형 행사로 탈바꿈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Space Challenge 2025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5개의 공군부대(원주, 수원, 광주, 김해, 서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Space Challenge 행사에서도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수송기 탑승 체험, 조종사 탐색구조시범, F-15K, F-16, FA-50, C-130 항공기 관람 등 대한민국 공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수송기 탑승 체험은 지역별 행사 일정에 따라 개최일 3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각 부대별로 100쌍을 무작위 추첨하여 탑승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블랙이글스 에어쇼



수송기 탑승 체험

이 외에도 관람객들은 직접 참여하여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고무동력기·폼보드 전동 비행기 날리기와 항공기 시뮬레이터, 드론 체험, 캔 위성 체험 등 다양한 항공우주 관련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고무동력기·폼보드 전동 비행기 날리기는 부대별로 선착순 각각 150명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행사일 3주 전부터 Space Challenge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공군 군악대의 공연과 의장대의 시범이 행사일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씩 펼쳐질 예정이다.



고무동력기 날리기

수송기 탑승, 고무동력기 및 폼보드 전동 비행기 날리기 등 사전 신청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행사정보는 Space Challenge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공군 스페이스챌린지’와의 1:1 문의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한껏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돌아온 항공우주 과학 축제 Space Challenge에서 소중한 이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 ☞

SPACE CHALLENGE 2025



내 옆의 공군인

제63화

숙명여대 학군단장,
김현주 중령





인터뷰 중인 김현주 중령



교관들과 회의 중인 김현주 중령

안녕하십니까?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교육사령부 공군학생군사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학군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주 중령입니다. 학군 후보생들은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장교의 길을 자원한 학생들입니다. 저는 학군단장으로서 이 후보생들이 군인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전투지휘능력, 교육지도 능력 등을 겸비한 훌륭한 장교이자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호흡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와 숙명여대 학군단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학군단의 장교 양성 과정

대학교 3~4학년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숙명여대 학군단의 교육과정은 크게 교내교육과 입영훈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교육에 앞서 선발된 학군 후보생들은 2학년 겨울방학 동안 학군 후보생으로서의 첫 과정인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2주 동안 이루어지는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학군 후보생들은 기본 제식, 기초 군사지식 등을 체화하며 장교후보생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3학년 1학기부터 교내교육과정이 시작되며 졸업 때까지 주 2회 6시간 동안 숙명여자대학교 학군단 소속 교관들에게 공군 교리 및 작전, 안보관, 군사훈련 지휘법 등 수업을 받으며 장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들을 익히게 됩니다. 교내교육과 함께 후보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는 방학 동안에도 입영훈련을 받게 됩니다. 3학년 여름방학 5주, 4학년 겨울방학 3주 동안 교육사령부에서 진행되는 사격, 화생방, 유격, 행군 등 군사훈련을 통해 후보생들은 군인에게 필요한 체력, 인내심 등을 함양하고 한 단계 성장을 이루며 정예 공군 장교로 거듭납니다.

숙명여대 학군단만의 강점

사상 최대와 최고의 가치는 항상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 변화하지만 최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숙명여대 학군단은 공군 최초의 여대 학군단으로서 그 자부심은 숙명여대 학군단을 통해 임관한 임관자들과 후보생들에게 각인되어있습니다.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초’에서 오는 숙명여대 학군단 후보생들의 자부심이 우리 학군단이 타 학군단과 차별화될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생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저는 후보생들이 편견에 갇히지 않도록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다움’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을 하면서 제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고 부드러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인다움’이라고 여겨지는 이미지인 강인함과 같은 것들을 갖추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며 저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천편일률적인 모습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가진 개성으로 완벽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서로 보완해주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생들이 ‘군인다움’이라는 편견에 갇혀 나다움과 본인의 개성을 잃지 말고 본인이 가진 장점을 살려 공군을 위해 일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생들이 겪는 어려움

저는 후보생들 나이에 공군사관학교 생도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가 그랬던 것처럼 후보생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교로 임관하는 선택이 맞는 것일까? 어떤 특기를 선택해야 할까? 등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걱정으로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늘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그 나이에 겪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후보생들이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후보생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후보생들이 선택한 길을 지지하며 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보생들과 함께 체력단련 중인 김현주 중령



후보생과 상담 중인 김현주 중령

학군단 생활을 통해 후보생들이 얻어가는 가치

저는 후보생들이 학군단 생활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얻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방학 기간인 입영훈련 중에는 빡빡한 일정과 규율 속에서 단체생활도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느끼는 성취감, 동기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만들어지는 많은 이야기와 팀워크는 공군 장교, 나아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생들의 생활을 점검하고 있는 김현주 중령



후보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김현주 중령



후보생 진급 및 입단식에서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훈시하고 있는 김현주 중령

되고 싶은 단장의 모습

저는 단장이라는 직함과 권위를 떠나서 후보생 한 명 한 명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언제든 편히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단장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저의 욕심과는 다르게 후보생들과 생활해보면 생각보다 세대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후보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저의 진심이 닿는다면 후보생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학군단장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후보생들과 홍보/모집 활동, 해외 문화탐방 등 많은 활동을 했고 그 시간들이 모두 정말 소중한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후보생들과 처음으로 대면했던 순간입니다. 본인들이 가고자 한 장교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모습과 기대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후보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후보생들과의 첫 만남이 단장으로서 각오를 다잡는 계기가 되어 아직은 원석인 후보생들을 훌륭한 장교로 입지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월간 「공군」 구독자분들에게 한 마디

많은 국민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군인을 꿈꾸며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많은 박수를 보내주길 바라며 장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후보생들과 생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대전광역시 지도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탄생했다. 독립된 공군을 보유하기 위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공군은 76여 년의 시간 동안 조국의 하늘을 지키며 대한민국 곳곳에 역사를 남겼다.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공군의 시설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도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마치고 우리의 역사로 남게 된 장소도 있다. 우리 생활 곳곳에 감춰진 공군 역사의 흔적을 찾고 조명하기 위해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기획 연재로 지역별 공군 역사 기행을 준비했다. 그럼 월간 『공군』 편집실과 함께 지도를 들고 공군사 여행을 떠나보자.

📍 대전 비행장의 건설

모든 발전의 밑거름에는 바로 사람이 있다.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위한 구조를 갖추며 상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모두 뛰어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쟁 이후 대한민국 공군이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며 현재의 강한 공군의 모습으로 거듭난 것 역시 안정적인 인적 자원의 확보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이렇듯 공군 발전의 근간이 된 인력 양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곳이다. 현재의 교육사령부는 경남 진주에 위치해있지만 최초의 교육사령부는 대전광역시, 그중에서도 대전시청, 대전정부청사 등이 있는 대전의 중심지인 둔산동 일대에 위치해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대전광역시 둔산동 일대에서 탄생했던 공군교육사령부의 흔적을 따라가 보았다.



공군교육사령부 창설(1973. 4. 10.)



해방 이후 대전 비행장 항공사진(『6·25전쟁사』 4권 발췌)

공군교육사령부는 대전에 위치했던 ‘대전 비행장’을 모체로 만들어졌다. 대전 비행장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시설이다. 해당 비행장은 일제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정확한 건설 시점은 알 수 없지만 1924년, 대전 비행장에 대해 다룬 기사가 등장한다. 해당 기사는 1924년 9월 5일 자 『조선신문』 기사로, 연습을 위해 평양에서 대구로 오는 비행기가 9월 13일에서 14일 경 대전으로 착륙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당시의 기사로 미루어봤을 때, 1920년대 중반 대전 비행장은 이미 비행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 비행장은 상설 군사기지로서 운영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대전이 가진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해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전 비행장의 역할은 1937년 이후 바뀌게 된다. 한반도 내 항공기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대전 비행장도 대대적인 확충 작업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대전과 공주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다수 동원되었다. 일제의 계획에 따라 확충된 비행장은 태평양 전쟁 말기 조종사들을 급히 보충하는 교육 비행대의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져있다.

📍 공군 교육의 메카로 거듭나다

대전 비행장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비를 거치며 군사 시설로 활용되었다. 특히, 6·25전쟁기에는 대전 지역 자체가 가진 지리적 중요성과 비행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략적 가치에 따라 전투가 벌어진 곳이었다.



대전 비행장에서 설치된 대공포의 모습이다. 연도는 미상이지만 대전에서 벌어졌던 격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항공병학교 정문



공군기술교육단 기지 전경



군사훈련 중인 항공병학교 장병들(1953)

이렇듯 일제시대부터 전쟁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대전 비행장에 195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군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신병 교육과 기술 부사관 교육을 종합하여 실시하기 위해 경상북도 자인에 창설된 항공교육대가 1952년 2월, 대전 비행장으로 이전하였고 같은 해 7월 항공교육대의 조직을 개편하여 항공병학교를 창설한다. 이 항공병학교는 현재의 기본군사훈련단의 전신이다.

항공병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기지에는 분야에 따라 장병들의 교육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통신전자학교 및 기술학교가 이전해왔고 공군은 이들 교육기관들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으로 1956년 공군기술교육단을 창설한다. 이후에도 공군기술교육단 예하에 훗날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가 되는 기술교육단 간부학교를 창설하여 기술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1971년 4월에는 제3훈련비행단을 예속시켜 공군기술교육단의 토대 위에 공군교육사령부를 창설한다. 이렇게 창설된 교육사령부는 대전 비행장의 활주로를 활용해 기초적인 비행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공군 교육의 중심이 되는 부대로 거듭나게 된다.

📍 행정의 중심이 된 현재

공군교육사령부는 1988년까지 대전에 위치하며 공군의 성장기 주요 동력이 될 수많은 인적 자원들을 양성해 내며 대한민국 공군의 현대화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전 비행장이 위치했던 부지인 현재의 둔산지

구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이곳은 새로운 곳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현재의 둔산지구는 대전시청, 대전정부청사 등이 위치한 행정 중심지이자 많은 시민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 삶의 터전으로 변모했다.



보라매 공원 비석



보라매 공원 내 기념탑

하지만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했던 이곳에는 아직까지 공군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특히, 공군이 자리잡았던 부지 중 일부에 ‘보라매 공원’이 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었다.

보라매 공원에 있는 야외 항공기 전시장, 기념탑 등은 시민들에게 이곳이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중심이 될 인재들을 양성하겠다는 공군의 구상과 계획이 담긴 곳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舊 공군부대 자리(출처: 대전 철각, 1995년, 대전광역시 공보관실)



대전시청사 항공사진(출처: 대전 철각, 2020, 대전광역시 대변인실)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된 탓에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했던 과거의 모습과 대전시청이 자리한 현재의 모습 사이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펼쳐진 긴 대로가 과거에는 공군교육사령부의 활주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있다.



보라매삼거리



보라매 공원 산책로

둔산지구 일대에는 ‘보라매’ 삼거리와 같이 공군을 연상시킬 수 있는 지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길게 펼쳐진 보라매 공원 산책로는 현재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 이곳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던 곳이었다. 

공군 부대 탐방



제16전투비행단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전투, 감시, 정찰, 대공방어, 교육·훈련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영공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활약하고 있는 우리 공군의 여러 부대를 탐방하며 부대의 역사와 임무 그리고 비전을 전하는 기획 연재를 준비했다. 이번 호에서 알아볼 부대는 대한민국 최초로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만들어져 최정예 전투 조종사 양성과 중·북부 영공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제16전투비행단(이하 16전비)이다.



제16전투비행단 창설(1976. 8. 1.)

제16전투비행단의 역사

16전비는 1976년 8월 1일, 당시 급박한 안보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있는 항공전력을 중부 내륙으로 분산시켜 공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군기지 최초로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창설되었다. 16전비의 창설은 중·북부지역 영공방어 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전력분산을 통해 적 공격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창설된 이후 1977년부터 F-5E/F 전투기를 활용해 방공비

상대기 임무를 수행하며 16전비는 본격적으로 전투비행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중·북부 영공을 성공적으로 지키며 성장한 16전비는 ‘공군의 미래 전장을 주도할 최정예 전투 조종사 양성’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수많은 전투 조종사들을 육성하기도 했다.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창설된 비행단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16전비는 2011년에 대한민국의 기술로 개발한 국산 전술 입문 훈련기인 TA-50 1호기를 도입하였고 전투기 전술입문과정(LIFT·Lead In Fighter Training)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16전비에서 운영한 전술입문과정은 전투 조종사들이 새롭게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이 된 F-15K, KF-16, FA-50 등으로 기종 전환하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서 2016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전투기인 FA-50을 전력화했고, 이 전투기들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6전비는 FA-50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전 세계에 우리의 뛰어난 항공 기술력을 알렸고 이는 필리핀,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 우리 항공기를 수출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16전비의 슬로건은 “우리는 하나다. 햇불을 밝히자.”이다. 그리고 16전비의 마크에서도 햇불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예로부터 전쟁터에서 햇불은 선봉을 상징했다. 16전비는 창설부터 지금까지 ‘최초’라는 수식어를 끊임없이 가져온 비행단으로서 최선봉에서 영공을 지킬 최정예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불철주야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데 선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16비의 자부심은 부대 마크 속 햇불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

부대 연혁



제202전투비행대대 예속변경 전입신고



TA-50 활용 최초 LIFT 과정('12-1차) 수료자 배출



FA-50 전력화 행사

- 1976. 08. 01. : 제16전투비행단 창설
- 1976. 12. 21. : 제202전투비행대대 예속변경
(대구기지 → 예천기지) 및 작전 개시
- 1999. 05. 19. : T-38A 고등훈련기 인수
- 2002. 02. 26. : 여성 최초 조종사 배출
- 2011. 01. 24. : TA-50 1호기 도입
- 2012. 10. 11. : TA-50 활용 최초 LIFT 과정
(‘12-1차) 수료자 배출
- 2012. 07. 27. : TA-50 국산 전술 입문훈련기 전력화
- 2014. 07. 01. : 제202전투비행대대 FA-50 전환창설
- 2016. 03. 21. : FA-50 전력화
- 2023. 01. 30. : 비행단 9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 무사고 수립기간(2011. 12. 6. ~ 2023. 1. 30.)

제16전투비행단의 주요 임무

16전비는 현재 대한민국 최초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창설한 부대로서 대한민국이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인 FA-50과 전술 입문훈련기인 TA-50을 운용하며 대한민국 중·북부지역 영공방위와 공군의 미래를 책임질 정예 전투 조종사 양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Fighting Eagle’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FA-50은 2016년 실전 배치된 16전비의 주력 기종이다. FA-50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T-50의 장점을 이어받아 짧은 이륙거리, 빠른 기동력, 최신 항공 전자 장비, 정밀타격 능력 등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FA-50은 AIM-9 공대지 미사일, AGM-65 공대지/함 미사일, JDAM 정밀 유도 폭탄 등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16전비는 이러한 FA-50의 특성을 활용하여 긴급출격, 정밀타격,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륙하는 FA-50



비행 중인 FA-50



TA-50 1호기 도입



비행 중인 TA-50

16전비는 FA-50과 함께 전술 입문훈련기인 TA-50을 운용하고 있다. 2011년 TA-50의 도입에 따라 16전비는 2012년부터 전술입문과정을 운영해왔다. 전술입문과정은 ‘입문-기본-고등’의 비행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전투 조종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신예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전투 조종사들은 이 교육을 통해 일선 전투비행대에 배치되기 전 각종 전술 비행 훈련을 실시하며 전투 조종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한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조종사들은 F-15K, KF-16, FA-50 등 주기종에 따라 일선 전투부대에 배치되어 활약하게 된다.

이렇듯 16전비는 조종사들이 성장하는 요람으로써 수많은 전투 조종사 양성에 기여해왔다. 2009년 이후 고등비행교육의 임무를 제1전투비행단에 넘겨주었지만 2025년 3월까지 고등비행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6전비에서 교육을 받은 전투 조종사의 수는 2,297명에 달하며,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선봉에서 활약하고 있다.



전술입문과정 수료식



16전비 교관 조종사에게 교육 받고 있는 폴란드 조종사



지역주민 이·미용 봉사활동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또한, 16전비는 2013년부터 TA-50을 활용하여 FA-50 수출국 조종사를 위한 수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6전비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폴란드 등 수출국 조종사들에게 무장 운용시스템 등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비행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16전비는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투 조종사 양성 체계도 국제적으로 알려져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완벽한 임무수행과 더불어, 16전비는 ‘국민의 군대’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진로체험 교육, 청소년 병영체험 캠프 등 지역주민들이 공군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16전비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유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국민들과 동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16전투비행단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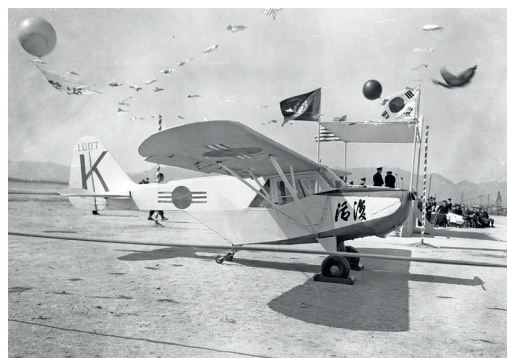
FA-50과 TA-50을 주축으로 한 16전비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야간 화재 진압 훈련, 대테러 훈련, 한미연합 유류 수령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비행단 장병과 군무원 모두 일치단결하여 훈련에 임하며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최초’ 타이틀을 보유한 16전비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발전과 전력 강화를 도모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최강의 방패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 햇불을 밝히자!’라는 슬로건 아래, 16전비는 하나 된 힘으로 하늘을 지키며 향후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선봉이자 햇불이 될 미래의 전투 조종사들을 길러낼 것이다. 

이달의 공군史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 명명식

(1954. 4. 3.)

1954년 4월 3일, 김해 공군기술학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비행기” 명명식이 있었다. 김해 기지 활주로에서 거행된 명명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되었다. 명명식에는 대통령을 대리한 함태영 부통령을 포함하여 손원일 국방부 장관, 이형근 합동참모본부의장, 임흥순 국회 국방위원장, 최용덕 공군총참모장, 김신 공군본부 작전국장 등 군 관련 주요 인사와 미국의 고급참모들이 참석했다. 기술학교에서 제작한 L형 항공기는 명명식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하사한 휘호인 ‘부활’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부활호 명명식 당시 식장에 전시된 부활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군 항공기에 이름을 지어준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1948년 말부터 진행된 육군항공대의 빨치산 진압 작전으로 항공력 수요가 급증했고, 당시 보유 중이었던 12대의 L형 항공기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이범석 국방부 장관은 美 임시군사고문단에게 고등훈련기 AT-6를, 이승만 대통령은 美 대사에게 제트 전투기 F-80의 지원을 각각 요청했다. 당시 美 군사고문단은 한국의 환경에 AT-6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항공기의 직접 지원이나 대한민국 공군의 독립에는 반대했다. 국회는 1949년 9월 30일에 본회의에서 「비행기 헌납운동에 대한 긴급 동의안」을 통과시켜 전국적인 “애국기헌납운동”으로 이를 돌파하려고 시도했고, 이튿날인 10월 1일, 정부는 「공군본부 직제」를 발령하여 공군을 독립시켰다. 이승만 대통령은 “애국기헌납운동”으로 이듬해 4월까지 모인 3억 5천만 원을 활용해 캐나다로부터 AT-6 10대를 구입했고 “전국의 동포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산 것이므로, 각 도를 대표해서 이름을 지어 비행기를 사는 데 희생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의 정신과 애국심을 표시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이 항공기를 “건국기”로 명명했다.

이와 달리 부활호는 명명식 이전부터 자신의 이름, 혹은 최소한 기체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공군 기술학교에서 항공기의 제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이원복 소령은 새로 만들어진 항공기의 기체 호수를 1007호로 제안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제작된 항공기에는 ‘K-1007’라는 기체번호가 도색되었다. 이 숫자는 1950년 9월 1일의 다부동 전투에서 L-4를 타고 정찰 지원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 전투기 3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망한 천봉식 중위의 성인 천(千)과 행운의 숫자로 알려진



부활호 앞에 참석자들이 선 채로 촬영한 사진

7을 더한 것이었다. 이원복은 경성공업전문학교 기계과를 수료하고 새로 창설된 서울대학교 항공조선학과를 1기로 졸업, 전쟁 중에 공군에 입대했고, 천봉식은 일본 육군 소년비행병 출신으로 해방 직후에 서로 연이 닿아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이원복 소령이 천봉식 중위를 기리기 위해 붙인 1007이라는 숫자는 촘촘히 얹혀서 분투했던 당시의 좁지만 끈끈했던 대한한국 항공계의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개발 중이던 항공기를 K-1007로 부르는 데 모든 이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의미를 부여한 명명식 이후에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부여한 이 기체번호는 주목받기 어려웠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다른 군 장비 명명식과 달리, 부활호의 명명식에서 낭독된 부통령의 축사는 기록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그가 하사한 ‘부활’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내기 힘들다. 다만 명명식이 거행된 1954년 4월이 휴전협상이 타결된 지 불과 반년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황폐해진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후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국산 기본 훈련기인 KT-1에 ‘웅비’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지휘권자가 그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며 공군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항공기 이름을 공개 모집하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인 T-50 고등훈련기는 국민공모를 통해 ‘골든 이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2005년에 도입된 F-15K 전투기와 2008년에 도입된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국산 개발 항공기가 아님에도 국민공모를 거쳐 각각 ‘슬램 이글’과 ‘피스아이’로 명명되었다. 2008년에 개발된 KT-100 훈련기 역시 국민공모를 통해 ‘날아가다’의 ‘날아’ 부분을 소리로 적은 ‘나라’와 100을 뜻하는 순우리말 ‘온’을 합친 ‘나라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2019년에 도입된 KC-330 공중급유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도 공군 내부 공모를 통해 각각 ‘시그너스’와 ‘프리덤 나이트’가 되었다. E-737 명칭 공모에는 2,551명이, KC-330 명칭 공모에는 공군 내부에서만 진행했음에도 1,860명이 참여하여, 21세기가 시작될 때 공군이 기대했던 국민 참여도 증진은 나름의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KF-21 보라매 출고식(출처: KAI)



비행 중인 KF-21 보라매(출처: KAI)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명칭도 이러한 공군의 방향성에 따라 국민공모에 부쳐졌다. 2021년 4월 9일에 거행된 출고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KF-21에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주셨다.”라며 공모의 결과를 당위적으로 수용하는 연설을 했다. 80년도 안되는 시간 사이에, 항공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사’는 대통령이 멋들어지게 붓글씨로 쓰인 한자어를 하사하는 방식에서, 수개월에 걸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부여하는 이름을 사용자나 통수권자가 추인하는 형태로 크게 바뀌었다. 비록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함선의 진수식과 비교하면 짧은 전통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항공기 명명식이 그 자체로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문화라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 이동건, 『최초 국산 경비행기 부활호』(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21), pp.274~276.



무인 전투기의 역사 I

제1차 세계대전

무인기는 현재 인공지능과 더불어 첨단과학기술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 달리 무인화된 항공기를 공중 표적(Aerial Target) 또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념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존재했었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3월 첫 비행에 성공한 드 하빌랜드의 무선 조종 단엽기는 공중 표적 프로젝트의 첫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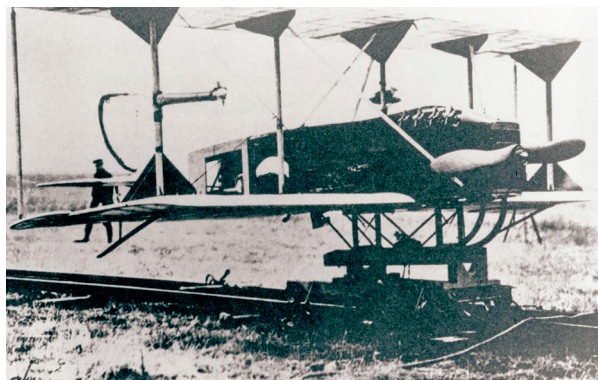
1917년 9월, 美 해군도 커티스 N-9 훈련기를 무인화시켜 첫 비행에 성공했다. 美 해군은 자동조종과 원격조종 개념을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첫 비행에 성공한 기체는

자동조종장치가 적용된 기체였다. N-9을 개조한 무인기는 48km를 비행하여, 표적 3km 이내에 모래주머니를 투하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에 美 해군은 해군 함정에서 N-9 무인기를 발진시켜 독일 잠수함 기지를 공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美 해군의 원격조종 무인기로는 커티스-스페리(Curtiss-Sperry) 비행 폭탄이 있었다. 1917년 11월에 처음 인도된 이 비행 폭탄은 기존 항공기를 무인기로 개조한 N-9과 달리 처음부터 원격조종 개념으로 설계된 무인기였다. 따라서 N-9 무인기와 달리 조종석이 없다. 커티스-스페리 비행 폭탄은 1918년 3월, 비행에 성공하면서 ‘역사상 최초의 원격조종 공격용 무인 비행체’가 되었다.



드 하빌랜드 실험용 무선 조종 단엽기 공중 표적(출처: IWM)



역사상 최초의 원격조종 공격용 무인 비행체 커티스-스페리 비행 폭탄(출처: usni.org)



순항미사일의 원조 케터링 버그 공격용 무인기



제2차 세계대전 전에 개발된 OQ-2 원격조종 무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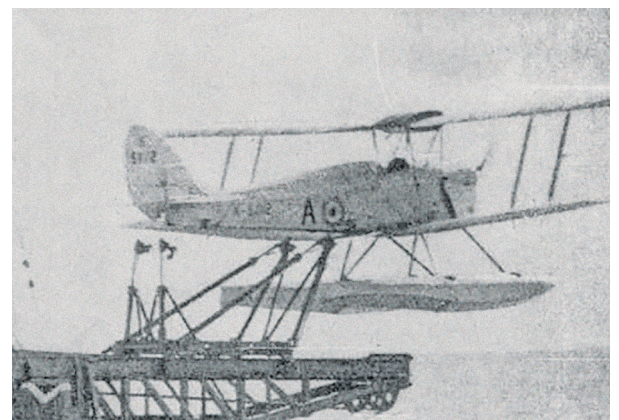
1918년 10월 첫 비행에 성공한 케터링 버그(Kettering Bug)는 처음부터 자동조종 개념으로 설계된 공격용 무인 항공기였다. 데이튼 라이트사(Dayton-Wright Company)가 1917년 11월부터 개발에 착수한 케터링 버그는 82kg의 폭발물을 탑재하고, 80km/h의 속도로 최대 121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다. 케터링 버그는 약 45대가 양산되어 美 육군항공대에 인도되었지만 실전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기술적으로 케터링 버그는 귀환 및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기체에 탄두를 내장했다는 측면에서 순항미사일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엔진 회전수와 관성 항법장치를 사용하는 유도방식은 훗날 V-1 순항미사일에 사용되기도 한다.

전간기

제1차 세계대전 후 美 육군은 케터링 버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무인 전투기 연구를 지속했다. 비록 공격용은 아니었지만 1930년대부터 RP-1 등 여러 기종의 원격조종 무인기들이 미국에서 등장했고, 1940년부터는 OQ-2(RP-4)가 美 육군에서 대공포 사격훈련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美 해군도 무선 원격조종 연구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로 1938년부터는 원격조종이 가능한 커티스 N2C-2를 대공 표적 드론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영국은 1921년 무선 조종 항공기 위원회를 설립하여 원

격조종 무인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공중 표적 프로젝트로 연구된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영국은 드 하빌랜드 DH.82B 퀸비(Queen Bees)를 1935년부터 400대 이상 생산했다. 후방석에 무선조종 체계를 탑재한 퀸비는 전방석에 DH.82 타이거 모스의 조종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페리 비행이나 시험 비행 시 조종사의 탑승 조종이 가능했다. 퀸비는 필요에 따라 유인 비행도 가능한 항공기였기 때문에 오늘날 OPV(Optionally piloted vehicle)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다. 퀸비는 ‘최초의 재사용 및 귀환 가능한 무인기’였다. 무인기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드론(drone)’이라는 이름은 수컷 벌을 뜻하는 영어로 퀸비의 이름과 역할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퀸비의 등장 이후 1936년 美 해군 연구 그룹 책임자도 무선조종 공중 표적에 대해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드론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DH.82B 퀸비(출처: www.historyofwar.org)

영국은 함정 공격을 위한 무인기 개발도 시도했다. 인체의 일부인 후두(Larynx: Long Range Gun with Lynx engine)라는 특이한 이름을 명명한 이 무인기는 자동조종 방식을 사용하여 320km/h 속도로 180km를 비행할 수 있었고,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시험 비행을 실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을 비롯한 미국, 영국은 초보적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무인기를 개발하였는데 그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현대 순항미사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V-1 미사일이다. V-1 미사일의 V는 독일어 복수(Vergeltungswaffe)를 의미한다. 비행 폭탄에 대한 첫 설계는 1935년부터 이루어졌지만 V-1의 특징이 되는 꼬리 위 펄스제트 엔진과 형상 설계는 1942년부터 본격화되었다. 1942년에 피젤러(Fieseler)가 완성한 제식명칭 Fi 103은 1943년 독일 공군이 생산을 허가했고, 1944년에 히틀러가 V-1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승인했다. 1944년부터 영국 런던에 대한 공격에 사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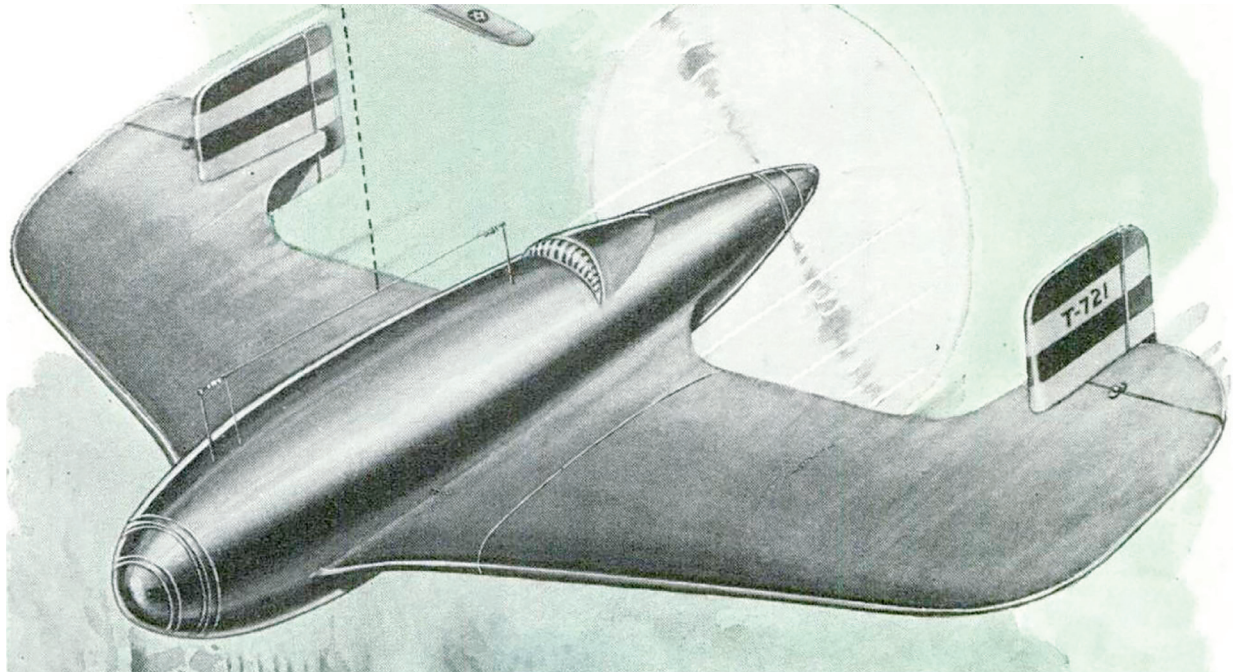
V-1은 850kg 탄두를 탑재하고, 640km/h의 속도로 250km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다. 약 30,000발이 제작된 V-1은 영국을 향해 약 10,000발이 사용되었고, 그중 런던에 약 2,419발이 도달하였다.

무인기에 전자광학 센서를 부착하여 무선으로 원격 조종한다는 개념은 『파퐁러 메카닉스(Popular Mechanics)』라는 잡지 1940년 6월호에 등장한 바 있었다. 당시 잡지 기사에는 수평 미익이 없는 무인 푸셔 프로프의 무인기 개념도가 실려 있었다. 개념도의 무인기는 기수에 텔레비전 카메라, 동체 전방에는 폭약을 탑재하고 있었다. 이 무인기는 B-17과 같은 폭격기에서 전파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조종한다는 운용개념으로 등장했다. 이 무인기는 발사 및 통제 항공기가 TV를 보면서 표적까지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공군 F-15K가 운용하는 AGM-84 SLAM-ER과 유사한 면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美 육군은 무인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인 폭격기로 개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개조에 사용된 폭격기는 美 육군이 주력으로 사용한 B-17과 B-24(PB4Y) 기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 공격에 사용된 독일의 V-1



로봇 텔레비전 폭격기 개념도(『파퐁러 메카닉스』 1940년 6월호)

B-17의 드론형은 BQ-7, B-24의 드론형은 BQ-8로 명명되었다. 이들 폭격기는 美 육군의 아프로디테(Aphrodite) 작전과 美 해군의 앤빌(Anvil) 작전에 투입되었다. 당시 무인화 기술은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폭격기를 원격으로 이륙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무인화된 폭격기는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탑승한 채로 이륙하고, 600m 이상 고도에 도달하면 무인 폭격기를 통제하는 CQ-4 항공기에 통제권을 이양한 후 조종사들은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무인화된 폭격기에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2대 장착되어 각각 조종석 계기판과 기체 전방을 비추고 있었다. CQ-4 통제기 역시 B-17을 개조하여 만들어졌으며 통제기는 무인 폭격기에 장착된 2대의 텔레비전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론형 폭격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 무인화된 폭격기들은 인명 손실을 없애면서, 기존 폭격기의 2배인 9,100kg(20,000lbs) 폭약으로 견고한 표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케네디 대통령의 형인 조셉 케네디는 아프로디테 작전에서 BQ-8와 함께 전사했다.(출처: 美 육군)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독일 대공포 피격, 조종사 탈출, 기상 등 운용방식의 한계와 인명 손실, 기술 부족 등의 사유로 작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美 육군은 무인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표적용 드론으로는 널리 사용하여 PQ-8, PQ-14 등의 드론을 대량 생산했다. [\[4\]](#)

임상민 겸임교수(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KAI), 기품원(現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영국 런던·도버해협

영국은 지난 수 세기 동안 본토의 100배에 달하는 식민지를 가졌던 제국이었다. 현재 6,900만 명의 인구와 243,000Km²의 면적을 가진 영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48,900달러에 이르는 부국이다. 영국은 1215년 국왕이 국민 기본권리 보장을 약속하는 마그나카르타(대헌장)에 서명한 이후,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며 현대 민주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국가이다. 또한, 영국은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 53개국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지금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적인 강대국 중 하나이다.

수상관저 옆의 '처칠 지하전쟁지휘소'

런던 중심부 다운닝가 10번지의 '지하전쟁지휘소'에는 5년간의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특히, 당시 공주의 신분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급 차량을 운행하는 장교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기록은 영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전형을 보여준다. 처칠은 덩케르크 철수가 끝나던 1940년 6월 18일, 지하전쟁지휘소로 들어가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수행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했다. "유럽대륙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만일 런던이 점령된다면, 독일군은 내 시체를 이 의자에서 끌어 내려야 할 거요."라고. 유럽은 히틀러의 군대에 짓밟혔고, 영국군 224,000명, 프랑스군 120,000명이 물에 빠진 생쥐 모양으로 도버해협을 겨우 건너왔다. 스페인 프랑코 총통은 노골적으로 "전쟁으로 유럽 문명이 파괴되면, 독일이 아니라 영국책임이다."라는 모욕적인 언사로 독일과의 강화체결을 권고했다. 그러나 처칠의 확고한 항전의지에 영국은 전 국민이 일치단결했다. 노인들은 엽총·농기구 심지어 골프채를 들고나와 도버해협을 경계했다. 청소년들은 자원 입대장소로 몰려들었고, 부녀자들은 군수공장으로 달려갔다.



전시 군수공장의 영국 여성 근로자



처칠 지하전쟁지휘소 입구 전경

히틀러 본토침공 의지를 꺾은 영국 공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의 활약상은 런던 교외의 왕립 공군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박물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전쟁 당시 본토수호의 주력 전투기 ‘스핏파이어 (Spitfire)’ 10여 대가 정비를 받고 있다. 1930년대 제작된 이 항공기들은 전시실이 아닌 런던 상공에서 수시로 날겠 것을 한다. ‘에어쇼’ 행사에서 ‘스핏파이어’가 현란한 비행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영국인들은 열광한다. 공군박물관은 1918년 공군창설 이후 항공기의 역사에서 우주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영국 공군의 본토방어 전시실은 영국인의 애국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40년 9월 7일 저녁, 런던 시내에 최초의 독일 폭격기 대공습이 있었다.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은 침착하게 지하철 승강장으로 달려갔다. 히틀러는 잔인하게도 낙하산형 시한폭탄까지 뿌렸다. 그럴수록 영국인들의 항전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최악의 도시 폭격에 1,000여 명의 파일럿이 온몸으로 맞섰다. 20세 내외에 소위로 임관한 이들 중 1년 이상 생존하여 중위 진급을 한 장교는 거의 없었다. 결국, 어린 청소년들의 애국심이 런던을 구했다.”라고.



영국의 스프이트파이어 전투기



버킹엄 궁전 부근의 영국 공군 조종사 추모 동상

영국으로 압송되어 온 '나폴레옹의 말'

대부분의 영국 향토박물관에는 그 지역연대의 전통·무기·업적 등을 소개하는 군사분야 전시실이 있다. 특히 런던은 전쟁박물관 이외에도 포병·공병·기병·헌병 등 각 병과별 기념관까지 있다. '박물관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군박물관에는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군이 노획한 '나폴레옹의 말'이 전시되어 있다. 나폴레옹이 탔던 이 군마는 영국의 어느 귀족이 관리하다가, 말이 죽자 뼈만으로 박제를 만들어 이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런던 육군박물관의 박제된 나폴레옹 말

육군 장교 양성의 산실 '샌드허스트'

모병제를 시행하는 유럽 대부분 국가는 파격적인 혜택 제시에도 불구하고 신병확보가 어렵다. 밀레니얼 세대가 힘든 군 생활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영국은 군 간부만큼은 엄격한 검증을 거쳐 최고의 정예사원을 뽑는다. 샌드허스트는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1801년 최초 왕립군사학교로 개교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문을 닫았다. 1947년 대폭적인 군 구조개편과 함께 1년 과정의 장교학교로 개편했다. 고색창연한 학교건물은 200여 년의 전통을 말해준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 왕세자 윌리엄도 이 학교 졸업생이다. 장교선발은 모집공고부터 최종합격까지 1~1.5년이 걸린다. 다양한 심층 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대학졸업자 중 지적능력·인성·체력에서 최우수 그룹에 속해야만 선발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만이 '샌드허스트(Sandhurst)' 입교가 허락된다.

‘버켄헤드’호 박물관

‘하얀 절벽(White Cliff)’으로 유명한 영국 남부 도버항에는 로마제국이 축성한 성곽 안에 군사박물관이 있다. 이 성은 대륙세력의 침공을 막아내는 방파제였고 끊임없이 보강되어 왔다. 영국은 1940년대 독일군 상륙 차단을 위해 이 성채에 대규모의 지하요새를 건설했다. 이곳에는 도버지역 연대원들이 관련된 ‘버켄헤드(Birkenhead)’호 사건의 상세한 자료가 박물관에 있다. 박물관의 자료는 당시를 “1852년 2월 26일 새벽 2시, 1,800톤급 증기선이 영국군과 군인 가족 630명을 태우고 남아프리카 시몬 만을 향해했다. 잔잔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암초에 충돌하여 순식간에 침몰하게 되었다. 대혼란 속에서 부대장 세톤(Seton) 중령은 전 병력을 갑판에 집결시켜,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우선 구명정에 태우도록 명령했다. 8척의 구명보트 중 3척만이 사용 가능했다. 상어 떼가 우글거리는 바닷속으로 선체가 빠져들어 가는 순간까지, 파이프 음악과 북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구걸하거나, 움직이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438명이 사망하고, 192명이 구조되었다.”라고 증언한다. 당시 영국군의 군기가 어떠했는가를 짐작케 하는 사건이다. 



도버성 박물관 버켄헤드호 사고광경 전시물



프랑스의 칼레가 보이는 도버항 요새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 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한 달, 한 권

군대에서 만난 평생의 연인,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김동원 작가

국방부 진중문고 『독서로 군 생활은 예술이 된다』의 저자. 군 생활 동안 약 170권의 책을 읽고 ‘관점’을 바꾸게 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장병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전 군부대를 다니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적반이(적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많은 장병들의 군 생활을 돕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방부 진중문고 『독서로 군 생활은 예술이 된다』의 저자 김동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칼 필레머의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평생의 연인을 만나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야 알게 된 단어 중 하나가 ‘일말상초’였습니다. ‘일병 말과 상병 초’의 줄임말로, 군 복무 중 연인과 이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훈련소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전우들의 모습을 보며, 군 복무 중 연애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도서관을 서성이던 중, 우연히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군 생활에 관련된 책인가 싶었지만, 책을 펼쳐 보니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와 ‘열렬한 감정’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 현자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핵심 가치관의 일치’였는데, 이는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서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대화’와 ‘배려’가 관계의 핵심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열렬한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한 여자 후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부를 나누던 중, 저는 군대에서 처음으로 독서를 시작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책을 즐겨 읽던 그녀는 흥미로워했고, 이후 독후감 대회에 출품할 저의 글을 읽고 피드백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군악대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의 군 생활 이야기를 책으로 써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차츰 원고를 적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제 글의 첫 독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통해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녀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연인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복무가 한참 남은 상황에서, 이런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녀에게 부담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고민하며 다시 책을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그(녀)가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이 질문은 자신의 직관을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그걸 알려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지. 좀 서둘러라도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해.

정답은 거기에 있어. 자신의 직관 말이야.”

-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p.52 -

그러자 ‘이 사람이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그녀와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전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인과의 대화 소재가 고갈되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에서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 읽고 있는 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책을 추천해 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남은 군 생활을 잘 보내고 전역한 후, 저희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한 지금, 돌이켜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져 때로는 갈등을 빚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책의 내용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조금씩 맞춰가며 다시 초심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가정에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배우자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동원하는 예의, 위트, 배려, 듣기 좋은 목소리, 말조심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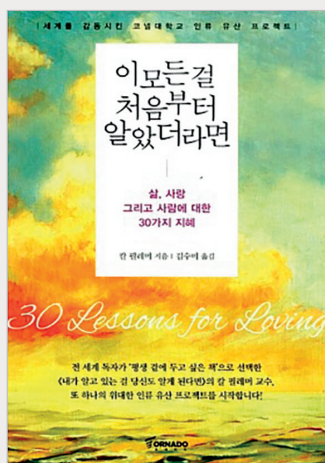
갖가지 사회적 윤회율을 가정에서는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할 곳에서 가장 투명스럽고 무례하게 행동하며

심지어 못된 언행을 일삼는다.”

-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p.130 -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 칼 필러머 지음 | 김수미 옮김 | 토네이도 펴냄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의 현자들은 제게 평생의 연인을 알아 보는 혜안을 주었고,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을 마주하겠지만, 책에서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배우자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려 합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인 것을, 매일 새롭게 배워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세계 식문화 기행

이탈리아 음식 이야기

**손정희(우석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민국 조리기능장’이자 ‘한국외식관광진흥원’ 상임이사 역임, 우석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외식관광뉴스』에 ‘손정희 교수의 세계 식문화 기행’ 칼럼을 연재했으며 다양한 방송활동을 포함해 메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시칠리아섬과 사르데냐섬을 포함하고 있는 장화 모양의 기다란 반도 국가이다. 이탈리아 반도 북부에는 롬바르디아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여기서 재배되는 쌀을 활용한 리조토가 발달했다. 반면 남부는 듀럼 밀로 반죽한 파스타가 시작된 곳으로 이곳에서는 다양한 파스타 요리를 즐겨 먹는다. 또한, 이탈리아 남부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지중해식 식단이 시작된 곳으로 신선한 제철 채소 샐러드와 발효유, 치즈, 포도주 등을 활용한 지중해식 식단은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식단으로 알려져있다.

이탈리아 음식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음식 중 하나는 피자이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의 대표도시인 나폴리는 피자의 원조가 되는 곳으로 알려져있고 폼페이 유적지에도 피자를 굽던 화덕이 보존되어 있을 만큼 역사가 깊다. 유서 깊은 음식인 피자는 사실 나폴리의 서민 음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피자로 마르게리타가 있는데 이는 사보이 왕가의 왕비 ‘마르게리타’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탈리아 국기의 3색을 상징하는 색깔을 가진 재료인 토마토소스(붉은색)와 모짜렐라 치즈(흰색) 그리고 바질잎(녹색)으로 만들었다. 이는 1899년 나폴리를 방문한 사보이 왕가 부부 내외를 위해 만든 피자로도 잘 알려져있다. 이외에도 피자를 사등분하여 각각의 조각에 이탈리아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재료들을 토핑으로 올리는 콰트로 스타지오니(quattro stagioni), 사등분된 피자에 네 가지 치즈(모차렐라, 고르곤졸라, 스트라키노, 폰티나 등)를 얹은 콰트로 포르마지(quattro formaggi) 등은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피자이다.

피자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탈리아 음식은 파스타이다. 파스타는 지역적 특색에 따라 재료와 모양이 수백 가지가 있으며 소스 활용에 따라 수많은 이름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의 한 드라마에서 대사로 쓰이며 우리에게도 익숙한 봉골레(vongole) 파스타는 이탈리아어로 ‘조개’라는 뜻을 지니며 이름처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조개를 활용하여 만드는 파스타이다. 알리오 올리오(aglio olio)는 ‘마늘과 올리브유’라는 뜻을 지니며 별다른 부재료 없이 마늘과 올리브유만으로



마르게리타 피자

맛을 낸 오일 파스타이며 카르보나라(carbonara)는 달걀노른자와 이탈리아식 베이컨인 판체타로 만들며 탄광 지역의 광부들이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위해 먹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인 피자와 파스타에는 다양한 가공육이 활용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햄과 소시지를 살루미(salumi)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이는 ‘소금에 절인 고기’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먼저 돼지 뒷다리로 만든 햄인 프로슈토(prosciutto)가 잘 알려져 있으며 익힘에 따라 익힌 것은 프로슈토 코토(prosciutto cotto), 익히지 않은 것은 프로슈토 크루도(prosciutto crudo)로 부른다. 소시지는 볼로나 햄이라고도 하는 모르타델라(mortadella)가 있으며 이는 잘게 다진 돼지고기로 만든 커다란 소시지이다. 이밖에도 살시차(salsiccia)는 익혀 먹어야 하는 생소시지이며 판체타(pancetta)는 이탈리아식 베이컨으로 다양한 요리의 풍미를 더하는데 사용된다.

치즈는 이탈리아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탈리아의 치즈 종류는 대략 400가지라고 하는데 치즈의 왕이라 일컫는 파르미자노 레자노와 곰팡이 치즈인 고르곤줄라, 양의 젖으로 만든 페코리노, 풍미가 좋은 크림치즈 마스카르포네, 리코타 치즈 등이 대표적인 치즈이다. 이탈리아 여행 중 마트에 들른다면 다양한 치즈와 살루미, 프로슈토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맛볼 수 있다.

이탈리아를 가게 된다면 이러한 음식들과 함께 현지의 카푸치노(capuccino)를 꼭 맛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이탈리아어로 ‘수도사들이 쓰는 두건’이라는 뜻을 가진 카푸치노(capuccino)는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하여 뜨거운 우유를 섞고 우유 거품을 올린 후 시나몬 가루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이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디저트로 젤라토(gelato)가 있다. 이탈리아어로 ‘얼린’이란 뜻을 가진 젤라토는 유지방 함유량이 낮은 편이며 공기 함유량도 낮아 더 진하고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다. [\[1\]](#)

소리로 보는 세상

당신은 나를 어린아이처럼 꿈꾸게 해요. 슈만 『트로이메라이』



송사비(뮤직테이너·작가)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클래식 음악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12만 유튜브가 됐다.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야화』, 『클래식 사용 설명서』를 출간 후 베스트셀러 작가로 급부상했다. (2022년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우수상 수상), EBS <클래스@ 2021: 클래식 뮤직드라마>, 팟빵 <당신을 여는 클래식, 송사비입니다>, FLO <일상의 클래식> 등을 제작·진행하며, 일반인과 클래식 사이를 이어주는 주선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딸을 출산한 지 어느덧 7개월이 되었다. 서른이 넘었지만 아직 내 인생도 꾸려내기 벅찬데,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직접 품에 안아 든 채 한 인간으로 키워 내야 한다니.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으며, 때로는 벅차고 감동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신생아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아기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먹지도, 싸지도 못하고, 심지어 스스로 잠드는 방법도 몰라 그가 무사히(?) 잠들 수 있게 매번 안고 열어야 한다. 신체 또한 미숙하기 그지없다.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늘 손으로 받쳐줘야 하고, 위장도 약해 모유나 분유를 먹인 후에는 역류를 막기 위해 반드시 트림을 시킨 뒤, 20분가량 세워 안고 있어야 한다. 시력은 또 어떠한가. 인간은 생후 50일이 지나기 전까지 처음 눈을 뜨면 초점이 흐릿한 흑백으로 세상을 본다.

이 모든 사실을 아기를 낳고 나서야 알았다. 밤낮 할 것 없이 2시간 주기로 계속 아기를 돌봐야 했던 고난 주간에는 남편에게 “아니 동물 새끼들도 잠은 혼자 자지 않아?”라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아기가 유난히 많이 울고 보채던 어느 새벽, 아무리 달래도 진정되지 않아 자장가라도 틀어보려 음원을 뒤적이다가 오랜만에 이 곡을 마주했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트로이메라이(Träumerei)』는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1810~1856)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쓴 <어린이 정경> 작품집의 일곱 번째 곡이다.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곡이라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이 곡을 마주쳐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트로이메라이(Träumerei)는 독일어로 ‘꿈’, ‘공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이 곡은 차분하고 몽환적이며 잔잔한 선율이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흘러, 마치 아릿한 옛 기억을 꺼내어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곡을 쓰던 당시, 슈만은 클라라 비크라는 9살 연하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문제는 클라라가 다른 아님 슈만의 스승, 프리드리히 비크의 딸이었다는 점이 었다. 프리드리히 비크는 어린 시절부터 클라라를 피아니스트로 키우기 위해 혹독하게 교육했고, 그녀가 음악계에서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딸이 가난한 무명 작곡가였던 슈만과 사랑에 빠지자,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슈만과 클라라는 몰래 편지를 주고 받으며 사랑을 이어갔고, 슈만은 이 감정을 수많은 곡으로 승화시켰다. 그가 <어린이 정경>을 작곡한 1838년은 바로 클라라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스승인 비크와 법정에서까지 싸우던 시기였다. 이 작품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회상’이 아니라, 클라라를 향한 슈만의 순수한 사랑과 동경이 담긴 음악이기도 하다. 특히 「트로이메라이」는 마치 사랑하는 이의 꿈에 나타나 조용히 어르고 달래듯, 조용하고 애뜻한 느낌을 준다.

클라라는 슈만에게 “당신은 어린애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라는 편지를 남긴 적이 있다. 여기서 ‘어린애’라는 단어에는 “9살이나 많으면서, 왜 이렇게 애처럼 구는 거야!”하는 구박이 아닌, 슈만의 순수하고 천진한 마음을 어여뻐 바라보는 애정이 담겨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시니컬해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이에게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 있었을까. 또 슈만은 그것을 어찌 어린아이의 꿈으로 곡을 써 내려갔을까.

온몸과 마음이 다 지친 새벽녘. 슈만 덕분에 아기를 겨우 재우고, 잠든 딸의 얼굴을 그때야 다정히 바라본다. 잘 때가 제일 예쁘다더니 어른들의 말씀은 역시 틀린 것이 없다. 그래. 너 역시 엄마의 양수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미숙한 신체로 끌려 나온 채 온 힘을 다해 세상을 견뎌내야 하는 일이 펍 버겁고 무서웠겠지.

나를 천국과 지옥에 동시에 빠뜨리던 신생아 시기가 지나간 뒤, 아이를 통해 다시 바라보게 된 세상은 무척이나 경이롭다. 벌써 7개월이 된 아기는 바람이 자기 머리칼을 스치는 것에도, 밤새 눈이 와 매일 보던 나무가 하얗게 옷을 입은 것에도, 엄마가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다 말고 휘파람을 불어주는 것에도 토끼 눈을 뜬 채 관심을 기울인다. 엄마 아 빠가 내는 ‘뽀짝’ 같은 의미 없는 된소리도 세상에서 제일 웃긴 소리가 된다. 아기의 맑은 호기심이 내 계도 옮겨 온 것일까. 그간 현실에 치여 바빠 지나치던 계절과, 꽃 한 송이, 작은 웃음소리까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무심하고 피곤하던 나의 세상이 온갖 색으로 칠해지고 있다. 세상을 처음 마주하는 아기 덕분에, 나는 요즘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은 꿈을 꾸는 중이다. 



슈만과 클라라

서양 문화 비행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I - 미술기법의 혁신이 된 원근법



소나영(광주아트가이드 편집위원)

어린 시절 미술과 글쓰기를 좋아했다. 꿈을 잊고 지낼 무렵, 미술에 관한 글쓰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2016년부터 조선대학교에서 미술 이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광주아트가이드 편집위원으로 '작가탐방' 코너에 매달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전시기획자와 미술비평가로도 활동 중이다.

‘르네상스’는 ‘재탄생’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 일반적으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로 구분된다. 왜 한 시대의 이름이 ‘재탄생’, ‘부활’이라는 뜻일까? 과연 무엇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대-중세-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고대’는 인간중심의 문화가 꽃피웠던 시기였고, 인체에 대한 탐구와 비율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다. ‘고대’에서 ‘중세’로 접어들면서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이 세상을 지배했고 모든 것은 인간에서 신 중심으로 변화했다. 이 시기 인간에 대한 탐구는 금기시되었고, 인간의 자유로운 발상은 억압되었다. 이런 ‘중세’는 1000년 동안 오래도록 유지되었으나 십자군 전쟁, 흑사병 등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기독교와 신을 중심으로 한 중세시대 세계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대의 고전 미술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대 인문주의와 인간 중심의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움직임이 점차 생겨났다. 당시 사람들은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주목하게 된다. ‘르네상스’는 고전으로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로 회귀하고 싶어했던 그 열망, 그리고 그것에서 기인한 인문주의의 부활과 재탄생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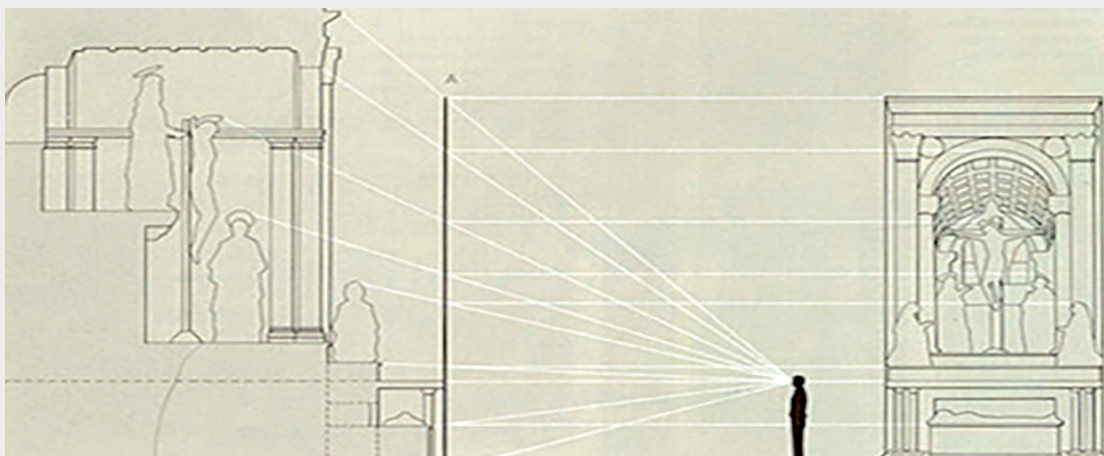
이 무렵, 미술사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원근법’의 발명이다. 그전에도 원근법이 있었다는 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혁신적인 설계 방법으로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완성한 브루넬레스키가 1415년,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근법이란 3차원 공간의 물체를 2차원의 평면 위에 거리감과 깊이감을 주어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수학적 방법이다. 이러한 원근법의 발명으로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보다 정확한 수학적 방법을 그림에 적용할 수 있었다.



마사초, 「성 삼위일체」, 프레스코화, 667x317, 1426년,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마사초의 「성 삼위일체」는 브루넬레스키가 발명한 원근법을 회화에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평평한 벽 위에 그려졌으나 마치 실제 공간이 있는 것처럼 깊이감과 공간감이 느껴진다. 원근법이 익숙하지 않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이자 건축가이며 미술사학자인 조르조 바사리(1511~1574)는 “이전 그림을 단순히 그린 것이라고 한다면 마사초의 작품에는 생명이 넘쳐흐른다...밑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좁아져 마치 담벼락을 뚫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길 정도였다.

당시 원근법으로 그림을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한 방법으로 소실점에 못을 박아 끈을 연결하여 스케치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실제로 「성 삼위일체」에도 소실점에 못 자국이 남아있다. 투시하여 연장선을 그었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소실점의 높이는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로 계산되었다. 당시 이탈리아 남자의 평균 키는 162cm였고, 그들의 눈높이인 153cm에 맞춰서 설계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그림의 1점 투시도 도해를 보면 그림의 공간이 4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급격한 경사를 줘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도록 그림을 설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감상자가 이 그림을 올려다보았을 때 종교적 숭고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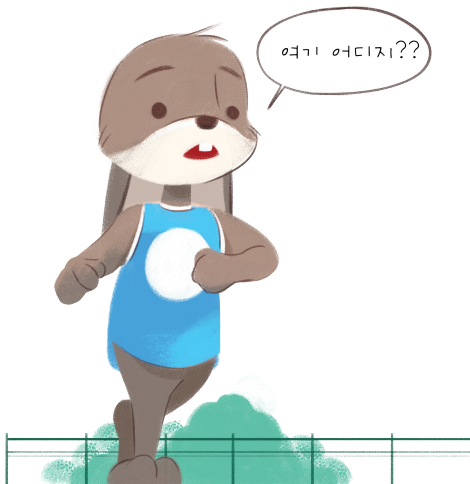
「성삼위일체」 1점 투시도 도해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하나의 하느님이라는 가톨릭 교리로, 이 그림에서 성부는 신의 모습으로, 성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공간에 위치한 하얀 새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그 아래에는 성모마리아와 성자 요한이 서 있고, 가장 아래쪽에는 이 그림의 봉헌자인 도미니코 렌지와 그의 아내 산드라가 마주 보고 서 있다. 이 시대에는 인간의 모습도 그림 안에 그려 넣어 신과 속세의 인물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구성했다.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에 대해 다시 자각하게 되면서 ‘신 중심의 예술’에서 ‘인간 중심의 예술’로 전환된 시기였다. 신의 시각으로 대상을 관찰했던 중세시대에는 대상과의 거리가 중요하지 않았다. 전지전능한 신의 시선으로는 모든 것이 평평해 보였고,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림도 이러한 시선으로 그려졌다. 반면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화가들도 그 자신의 눈으로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었다. 그들이 본 세상을 보다 정확하고 실제처럼 그려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원근법이었다. 원근법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20세기 모더니즘 미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서양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이 되었다. 원근법은 단순히 그리는 방식, 회화 기법을 넘어 세계를 인식하는 독립된 주체의 등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생각하는 그림

진정한 승자



2012년 12월 2일, 스페인 부를라다(Burlada)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 경기의 선두는 런던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케냐의 아벨 무타이(Abel Mutai)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을 10M 남겨두고, 무타이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승점의 위치를 착각한 것입니다. 그는 경주 코스를 알려주는 안내판을 잘못 보고 자신이 이미 결승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고, 관중들이 어서 더 달리라고 소리쳤지만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한 무타이는 그곳에서 경기를 마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2등으로 달리며 뒤를 쫓던 이반 페르난데스(Ivan Fernandez) 선수가 그의 바로 뒤까지 다가왔습니다. 무타이의 실수를 틈타 역전승을 이룰 수 있는 순간, 페르난데스는 무타이의 뒤에서 결승선을 손짓하며 그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무타이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남은 10미터를 달렸고, 페르난데스는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한 기자가 페르난데스에게 왜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에서 2등을 했냐고 질문했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경기의 승자는 무타이 선수였어요. 그는 제가 좁힐 수 없을 만큼 앞서갔어요. 그런 그가 멈춰 서는 것을 본 순간, 절대 그를 지나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납득할 수 없다는 듯 기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1등을 할 수 있었는데도요?”, 그가 답했습니다. “그렇게 이긴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메달이 영광스러웠을까요? 저는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전 세계에 송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벨 무타이와 이반 페르난데스 선수의 이야기는, 승리나 성공이라는 결과만큼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정직함 또한 값진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 아니라 상호 존중의 정신이 함께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공군인 여러분! 페르난데스 선수가 보여준 정직함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며, 눈앞의 이익만을 쫓지 않는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승자’가 됩시다.** 



그림 MAVIN(정오성) 작가

동화 같은 색채와 따뜻한 표현기법과 내용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18년부터 MAVIN(마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세스코&무신사 협조 전시 참여, 스트레이키즈 뮤직비디오 아트웍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인스타그램 @os.mavin)

특별기고

공군사관학교 77기 생도들의 시작에 부쳐

작가 황석영은 “우리나라만큼 글과 관계있는 것들을 존중하는 나라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에든 책은 많았으며, 심지어 6·25전쟁 때에도 책을 들고 다니며 파는 ‘보따리 장수’가 있을 정도였다고도 했다. 포화 속에서도 누군가는 책을 만들었다. 글을 쓰는 사람도 있었다. 6·25전쟁 중 결성된 공군 종군문인단 ‘창공구락부(蒼空俱樂部)’가 대표적이다. 월간 『공군』 2025년 3월호에 실린 창공구락부 소개글을 일부 발췌한다.

“공군은 김기완 당시 정훈감 주도로 6·25전쟁에 종군하던 기자와 문인들을 규합해 창공구락부를 발족한다...공군과 창공구락부의 만남은 양자 모두에게 감사한 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군은 출중한 재주와 능력을 지닌 문인들을 심분 지원하고 활용해 전시 정신전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었다.”

6·25전쟁 중 총 대신 펜을 들고 장병들의 전투 의지를 높였던 창공구락부의 정신은 50여 년이 지나 부활한다. 2006년 9월 7일, 공군을 사랑하는 문인들의 모임 ‘창공클럽’이 창설된다. 창공클럽의 회원들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소설 낭송회, 문학강연 등을 개최하고 공군을 소재로 저작 활동을 하기도 했다.

창공클럽 회원이었던 작가 권현숙은 공군사관학교(공사) 생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기회를 얻었다. 권 작가가 2010년에 쓴 소설 『에어홀릭(Airholic)』 초반부는 예비생도 시절 시작된 강규·박승주·이루다 세 사람의 우정, 생활·훈련지도 선배들이 기존의 친절할 모습을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예비생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성무기초훈련

3일째의 밤, 매주 종교활동마다 ‘벼락같이 주어진 평화’ 등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성무기초훈련을 마치고 정식 생도가 된 이들은 4년간 ‘성무대’에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실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난 2월 28일 정식 생도가 된 공사 77기 227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갓 성무기초훈련을 마친 이들 앞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도 그들 안에 있다. 앞서 언급한 소설 『에어홀릭』 본문은 “열아홉 살의 혁명. 나의 두 손으로 나의 미래를 움켜쥐었던 그날의 결정을 나는 그렇게 부른다. 열아홉 살에 난 내 인생을 리셋(reset)했다.”로 시작한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치기 위해 인생을 위해 ‘리셋’하며 공사를 택한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지닌 가능성·의지·패기·열정이 계속되길 바란다.

6·25전쟁 중 창공구락부, 20여 년 전 창공클럽 회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록을 업(業)으로 삼는 누군가도 공사 77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기록을 이렇게 남긴다. 



최한영 기자

일반매체 기자로 일하던 필자는 2020년부터 국방일보에서 근무하고 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장병들이 임무에 매진하는 모습에서 우리 군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마음의 소리

김동석

90w**@hanmail.net

‘역사 속 공군 이야기’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자항공대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당시에 남성들도 진출하기 힘든 항공 분야에 종사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자항공대가 창설되어 기틀을 마련한 덕분에 지금은 많은 수의 여성 조종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여자항공대 창설에 이바지하신 분들의 땀과 열정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김진원

oursolar**@naver.com

이번 외출 때 도서관에 갔습니다. 잡지 코너에 어떤 것이 있나 봤더니 월간 『공군』이, 그것도 월마다 종류별로, 또 정말 깨끗한 상태로 보기 쉽게 앞쪽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종이책으로 월간 『공군』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 한쪽에서 새 것 같은 월간 『공군』 3월호를 자유롭게 보니 참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좋은 책을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신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박순화

parksh12**@naver.com

제77기 예비생도들이 공군사관학교에서 성무기초훈련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을 ‘공군 소식’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4주 동안의 훈련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적응하고, 인내하며, 극복하고 협동하는 법을 배워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훈련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앞으로의 군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AF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군 역사를 다루는 기획 연재를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군 역사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F

월간 『공군』은 www.afzine.co.kr에서 간단한 설문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월간 『공군』에 보여준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을 주는 잡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F

월간 『공군』이 전하는 ‘공군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월간 『공군』 편집실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공군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
수
방
법



마음의 소리

afzine@korea.kr 메일 또는 월간 『공군』 홈페이지 독자 의견 창으로 제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책 읽는 공군

매월 12일까지 / 공백 포함 1,20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전자우편 전송
(인트라넷: uk0319@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월간
공군

562